

2016년 <제13기 가야학아카데미>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에 기록된 우리문화재

2016년 5월 11일(수), 오후 2~4시

---

# 일제강점기의 낙랑고고학

---

정 인 성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이 수업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업은 정시에 시작되오니 수업 5분 전까지 강의실(강당) 입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수업 시작 이후부터는 강의실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 3) 강의 교재는 1인 1부만 배부합니다. 교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 교육/행사마당 → 교육자료실**에서 교재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4)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제13기 가야학아카데미>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에 기록된 우리문화재

## 일제강점기의 낙랑고고학

발 행 **국립김해박물관**

(50911) 경남 김해시 가야의 길 190(구산동 232)

국립김해박물관

TEL / 055)320-6881~2

<http://gimhae.museum.go.kr>

인 쇄 (주)다원이엔씨 / 055-321-6400

## I . 들어가며

조선 후기에 이미 石鏃과 古鏡이 출토되는 사실에 주목하거나, 신라 왕릉의 피장자를 밝히려는 노력이 있어 이를 맹아적인 형태이지만 고고학적 활동으로 평가하기도 한다(이선복 1988). 그렇지만 근대학문으로서의 고고학은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으로 인하여 자생, 혹은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발전시킬 기회를 잃고 말았다는 것이 한국고고학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다(신숙정 1993; 이선복 1988; 정인성 2006). 즉 식민지기 고고학 야외조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관주도의 「古蹟調査」사업은 철저하게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독점되었으며 해방될때까지 한국인의 접근은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한반도 내의 유적조사 행위는 이미 강제병합 이전부터 이루어 졌는데, 알려진 것처럼 그 중심에는 도쿄제국대학의 교원들이 있었다. 도쿄제국대학 인류학교실의 도리이 류조(鳥居龍歲), 공과대학 건축학교실의 세키노 타다시(關野貞), 문학부의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들이 실시한 강제병합 전후의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병합 후에는 총독부 권력의 비호 아래 고적조사 사업은 더욱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古蹟調査 사업은 많은 가시시적인 성과를 쏟아내었으며, 그러한 성과는 한국을 지배하는 것이 문화사업도 중시하는 ‘善政’이라는 선전도구로도 적절하게 이용되었다. 이미 쇠락한 한국에서 황폐화된 문화재를 조사 연구하여 근대성을 부여하고 이를 복원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문명국에 진입한 일본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과시하는 수단이기도 하였다. 실제로 일본인들의 고적조사 사업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결국 친일의 길을 걷게 되는 인물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러한 선전은 제법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주에서 활약하던 오사카 긴타로(大板金太郎)의 제자인 張赫宙가 대표적이다(外村大 2005).

제국대학의 관학자들이 주도한 식민지 조선에서의 고적조사가 국가 차원의 식민지 경영 정책과 밀착해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선행연구들을 통해 비교적

분명해 졌다(西川 1970).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 고적조사에 참여한 일본 연구자들이 신공(神功)황후의 신라정벌과 임나일본부와 관련된 고고학적 증거를 찾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경주했다는 사실인데(李盛周 1995; 박천수 2009; 정상우 2008; 최혜정 2007; 이순자 2007; 정인성 2009), 이는 당시의 고적조사가 태생적으로 학문적 순수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연구자들은 식민지 공간에서의 고적조사가 통치를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를 창출하는데 적절히 기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비록 浮沈은 있었지만 총독부 권력은 이를 인정해 주었다. 즉 학자들은 국가의 팽창정책에서 고적조사의 중요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역설하고 그들의 존재가치를 선전했는데, 제국권력은 이를 인정하고 유·무형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정인성 2009). 즉 개인의 연구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의 침략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이후, 도리이 류조를 위시한 연구자들이 포연이 채 가시지도 않은 요동지방을 답사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한 사실에서 그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1910년부터 실시된 사료조사와 관련하여 조선의 종족은 어떠한 계통으로 오늘의 조선인이 되었을까? ‘그것을 아는 것은 조선의 통치상 특히 조선인의 동화 정책상으로 보아도 가장 유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총독이 도리이에게 조사를 의뢰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음미하면(宮里2010 재인용) 당시 식민지 공간에서 활약하던 연구자들과 제국권력의 관계는 분명해진다.

그런데 해방 후 일본고고학계의 식민지 조선고고학에 대한 평가는 국내학계와 판이하다. 물론 주류학계의 바깥에서는 국가권력과 밀착한 식민지 고고학에 대한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西川 1970), 많은 연구자들은 內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우수한 연구자들이 조선고적조사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우선 의의를 두려고 한다. 즉 일본에서 조차 유적 조사와 보존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없었던 시기에 가장 뛰어난 인적자원을 식민지 조선에 투입해서

유적조사와 보존에 헌신했다는 주장이(藤田 1948, 1953) 그것이다. 나아가 주어진 조사에서 연구자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며 학자로서의 열정을 자찬하고, 문화재의 가치를 모르는 조선인에게 그 가치를 적절히 각인시키려고 노력했으며, 유적보존에도 각별하게 힘을 쏟았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은 주로 해방 전에 고적조사에 직접 종사했던 연구자들의 비교적 공통적인 견해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간행된 일본 고고학저널은 식민지기 조선고고학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는데, 총론을 쓴 사오토메 마사히로(早乙女雅博)는 후지타 료사쿠(練田亮策)의 업을 빌어 선배들의 노력을 우회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해방 전 일본고고학자들이 이룬 학문적 성과마저 한국과 북한 고고학계가 적절히 평가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早乙女 2010). 물론 필자도 식민지 고고학이 이룬 학문적 성과의 전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일본과 일본고고학자를 위한 성과였지, 일본과 다른 한국인과 한국의 역사가 만들어낸 고적이라는 점을 의식한 성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조사연구가 식민지 지배정책과 밀착되어 결과적으로 피지배 국민을 만드는 이데올로기를 양산하고, 그들의 역사적 정체성을 말살하는데 이용되었건 말건, 고고학자는 주어진 조사에 최선을 다하기만 했다면 평가될 수 있다는 논리이기도 하다.

한편, 이상과 같은 일본인들의 고적조사 사업에 대해서 한국학계에서는 비판적인 주장이 많았음은 冒頭에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일본인들의 식민지 고고학 그 자체가 문화재 파괴로 이어졌다고 싸잡아 비난하는 목소리만 높았을 뿐, 사오토메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작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고적조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이미 1980년대 이후에 식민지기 신라·가야 고분의 발굴방법에 대한 검토(이희준 1987)나 양산 부부총 출토유물의 재조사, 대구 대봉동 지석묘의 재발굴(경북대학교박물관 1992), 김해패총의 재발굴(배진성 1999) 등과 같은 의미있는 작업이 있었지만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재검토

작업의 결여는 결과적으로 한국고고학의 기저에 흐르는 식민지 고고학의 내용과 영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한 측면이 있으며 나가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지 못하게 하였다.

해방 직후 고적조사를 담당했던 일본연구자들은 곡절을 겪으면서도 거의 일제히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이는 한반도에서의 고고학적 경험을 가진 인적 자원이 모두 사라지는 사건이었다. 설령 그들이 많은 조사 기록과 출토유물, 그리고 보고서들을 남겼지만 이를 경험한 한국인 연구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남겨진 자료마저도 모두 일본어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고적조사의 내용과 성과를 해방 후 한국인이 재검토하고 정리하는 일은 지난하였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방 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우리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다. 비록 늦은 감이있지만 식민지고고학이 양산한 고고자료를 한국고고학의 시선으로 체계적인 재정리가 시작되어야 할 때라고 믿는다.

필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혹자들은 ‘누가 조사하였건 객관적인 고고자료가 남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는 이 땅의 고고자료들이 가진 가치의 근대성을 일본인 연구자들이 선협적으로 일깨워 준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들은 바 있다 그러나 ‘고고자료는 말이 없으며 말을 시키는 것은 고고학자이기에 객관적인 고고자료란 없다’라는 고고학의 기본을 중시한다면, 조사·연구의 주권을 빼앗긴 채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고적조사의 일체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얻어진 성과는 분명히 한국고고학의 성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한다.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고고학적 활동을 일부 일본학자들은 임의로 「朝鮮考古學」과 「韓國考古學」으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분명 한국고고학의 前史가 아니라 식민지고고학의 범주에서 다루어야 한다. 공개되었건 비공개이건 이들 자료들은 한국고고학자의 시선으로 다시 검토하여 한글로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학문후속세대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필자가 실시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고구려유적과 낙랑유적의 조사내용에 대한 재검토작업(정인성 2006: 정인성 2008: 정인성 2009: 정인성 2010)은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 II. 식민지기 낙랑유적 조사내용의 검토

식민지기의 고적조사는 일반적으로 박물관협의회에 古蹟委員會가 설치되어 「古蹟 및 遺物保存規則」이 공포된 1916년, 그리고 건축재정 정책으로 인해 고적조사 사업이 위축된 후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의 물밑 작업을 통해서 「朝鮮古蹟研究會」가 설치된 1931년을 기준으로 분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1916년 이전을 고적조사 1기, 1916~1930년까지를 고적조사 2기, 그리고 1931년부터 해방까지를 고적조사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1기는 다시 강제병합이 이루어진 1910년을 기준으로 전·후반으로, 2기는 1921년 學務局에 신설되었던 古蹟調査科가 폐지되는 1924년을 기준으로 전·후반으로 나누어진다. 3기는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이 발표된 1933년이 기준이 될 수 있다.

낙랑유적의 조사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이미 오영찬과 윤용구의 정리가 있고 일본에서도 최근 다카쿠 겐지(高久健二)의 연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연대순으로 다시 정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오영찬 2004; 윤용구 2010; 高久 2010). 다만 여기서는 첨부된 표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충하기로 한다.

### 1. 낙랑유적조사 1기

낙랑유적이 처음 발굴된 것은 표에서 보는 것처럼 1909년이다. 당시의 조사는 형식상 한국 정부의 의뢰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일본인 고문에 좌지우지되는 통감부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며, 세키노 타다시(關野貞)라는

개인이 중심이 된 조사였다. 1909년에 최초로 굴착·조사된 석암동 고분은 세키노가 평양지역을 답사 여행하는 과정에서 현지 거류 일본인의 정보 제공으로 이루어졌으며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고분을 골라 즉석에서 굴착조사가 이루어졌다. 물론 한국정부에 조사와 관련된 사전 통지를 하고 허가 절차를 거쳤다는 그 어떠한 형적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림 1> 세키노 타다시(關野貞)

당시 세키노는 도쿄제국대학 공학부 건축학연구실 소속이었으며 조사를 보조했던 야쓰이 세이치(谷井濟一)는 같은 대학 문과대 사학과 출신인데, 원래 조사를 보조하기로 했던 이미니시 류(今西龍)가 이미 다른 조사<sup>1)</sup>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신하여 조사 보조원이 되었다. 또 한 사람의 보조원인 쿠리야마(栗山)는 세키노의 연구실 제자였으며 현장에서 굴착조사를 책임진 이마이즈미(今果)도 같은 도쿄대학 건축학연구실 출신으로 철도국의 기사였다. 즉 초기에 낙랑유적을 조사한 「세키노조사단」은 모두 도쿄제국대학출신으로 구성되며 대부분이 같은 건축학연구실 출신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이들에 의한 초창기의 낙랑 고분 조사를 식민사관을 의식하여 치밀하게 기획된 발굴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는 전고에서 밝힌 것처럼 사실과 다르다(정인성 2006). 당시에는 아직 평양지역에 낙랑고분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 고분과 낙랑고분의 구조적인 차이조차도 모르고 있던 때였다. 그 때문에 석암동 고분이라는 가장 전형적인 낙랑 전실분을 발굴해 놓고도 이를 고구려 고분이라 주장하여, 이에 반대하는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정인성 2006).

---

1) 도쿄대학 문과대학의 하기노가 실시한 전실묘 조사에 참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물론 머리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시기 낙랑 고분을 조사한 연구자들은 「日本書紀」와 「古事記」의 기사를 깊이 인용하여, 특히 신공(神功)황후의 신라정벌과 임나일본부를 기정사실처럼 생각하고 이와 관련된 고고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이마니시는 그가 경주를 처음 방문했을 때, 경주를 일본인이 회복해야 할 고토라 하여 예루살렘에 비유하고 있는데 (今西龍 1933), 이는 당시 이들의 일반적인 한국관을 여실히 드러낸다. 낙랑고분을 조사한 연구자들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강제병합 이전에 이루어진 거의 모든 낙랑고분은 세키노 타다시가 이끄는 조사단이 굴착조사하였지만, 하기노유지(萩野由之)라는 인물도 낙랑 전실분을 조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기노는 세키노와 같은 도쿄제국대학의 사학과 교원인데, 1909년에 이마니시를 대동하고 낙랑고분을 발굴하였는데, 그의 조사내용은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 나중에 세키노가 편집한 『朝鮮古蹟圖譜1』에 도판 1장 만이 실려 있을 뿐이다.

〈표 1〉 고적조사 1기에 조사된 낙랑유적(오영찬 2004와 高久 2010 참고하여 내용추가-이하 동일-)

| 調査日時          | 조사 대상         | 조사자               | 參考文獻  | 備考  |
|---------------|---------------|-------------------|---|---|
| 1909<br>(明42) | 石巖洞<br>古墳     | 關野, 谷井,<br>栗山, 今泉 | 朝鮮總督府, 1915. 『朝鮮古蹟圖譜』一, 東京.<br>정인성, 2006. 「關野貞의 낙랑유적 조사·연구 재검토」-일제강점기「古蹟調査」의 기억1-, 『湖南考古學報』24, 湖南考古學會.                                      | 1. 동경대학 건축학연구실의 세키노를 중심으로 한 개인조사적 성격이 강함<br>2. 조사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사진으로만 보고되었으나 정인성이 조사 내용 재검토하여 보고하였음. |
|               | 大同江面<br>古墳 甲墳 | 關野, 谷井,<br>栗山, 今泉 | 朝鮮總督府, 1915. 『朝鮮古蹟圖譜』一, 東京.<br>정인성, 2006.   | 상동  |
|               | 大同江面<br>古墳 乙墳 | 萩野, 今西.           | 朝鮮總督府, 1915. 『朝鮮古蹟圖譜』一, 東京.<br>今西龍, 1912. 「大同江面南の古墳との關係」, 『東洋學報』2-1, 東京.<br>정인성, 2006.  | 1. 하기노는 문과대학 사학과의 교원으로 간이조사를 실시함.   |
|               | 大同江面<br>古墳 丙墳 | 關野, 谷井,<br>栗山, 今泉 | 朝鮮總督府, 1915. 『朝鮮古蹟圖譜』一, 東京.<br>今西龍, 1910. 「朝鮮平壤郡大同江面南の古墳」, 『東京人類學會雜誌』25-293, 東京.<br>今西龍, 1912. 「大同江面南の古墳との關係」, 『東洋學報』2-1, 東京.<br>정인성, 2006. |   |

주목되는 것은 당시에 이루어진 낙랑 전실묘의 발굴조사에 통감부에서 파견 나온 이마이즈미(今果)가 끼어있다는 사실이다. 토목기사인 이마이즈미는 도쿄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자로 현장 고고학에 대한 경험과 학습이 전무한 사람이었다. 이는 세키노를 포함한 그의 조사원들도 비슷한 처지였지만, 이마이즈미가 현지 사정에 밝은 자로 현지에서 토목공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굴착 조사를 맡긴 것으로 판단된다. 이마이즈미는 현지의 조선인 인부를 부려서 분구를 좁고 깊게 굴착하여 매장주체부의 천장을 확인하고, 그 일부를 파괴하고 내부로 침투해서 부장품을 물색하였다. 유물 수습이 끝나고 내부가 정리되면 고분을 마치 지하에 설치된 건축물로 판단하고 설계도와 같은 도면을 작성하였는데, 이는 이후 고적조사에서 작성된 도면의 典範이 되었다. 이마이즈미가 굴착해 놓은 고분을 관찰, 스케치하고 그가 작성한 도면을 세키노가 건네받는 것으로 조사는 마무리된다. 물론 남아서 굴착된 고분을 되묻는 작업을 감독하는 것도 이마이즈미의 몫이었다 이는 고적조사 초창기부터 한반도의 고적조사에서 오히려 내지 일본보다 수준 높은 유구 실측도가 작성된 이유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즉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초창기의 고적조사에는 건축설계와 그림에 능한 조사원들이 대거 참여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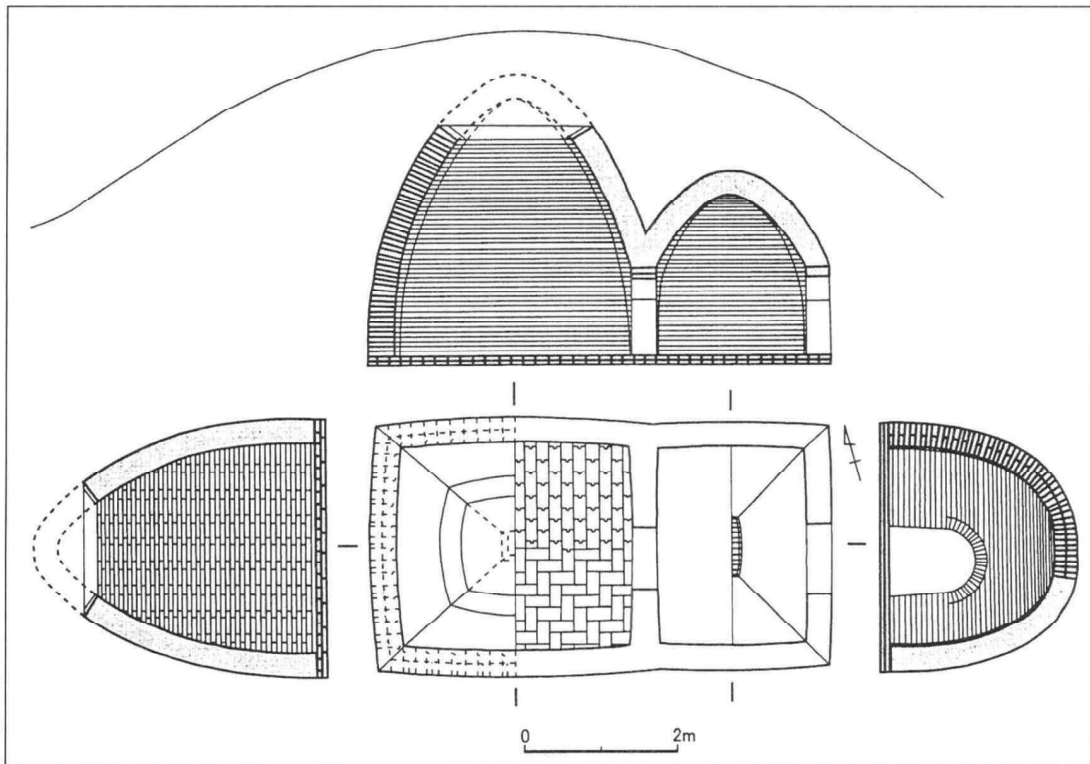
1909년과 1910년에는 전실묘만이 조사되었는데 이는 당시 낙랑 목곽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까닭에 기인한다. 실제로 1909년에는 봉분의 보존 상태가 좋은 고분을 다수 굴착하였지만 봉토에서 매장주체부가 드러나지 않는 고분은 모두 조사를 포기한 정황이 확인된다(關野 1910). 물론 이들 조사와 관련해서는 『朝鮮古蹟圖譜1』에 몇 장의 사진이 게재되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 內地

---

2) 세키노 타다시와 이마이즈미는 건축학 전공자로 모두 건축설계에 능했다. 뿐만 아니라 세키노 조사단 소속이었던 노모리 겐과 오바 쓰네키치는 화가였으며, 오가와 게이키치 역시 측량과 도면작성에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던 사람이다. 이러한 인물들을 선발한 것은 고적조사 내용을 근대적인 수법으로 기록하고 그 정보를 성과로 발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그림과 도면작성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人類學雜誌』에 소개되어 회원들 사이에서만 공유되었다.

1911년에 어을동토성이 발견되어 내부에서 漢式기와와 토기가 발견되고 봉산군에서 장무이묘가 발굴되면서 평양주변의 전실묘가 낙랑군 시기의 것이라는 인식이 확립되고 대방군의 위치에 대한 인식에도 일대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장무이묘는 그가 1909년에 발굴한 석암동 고분과 동일한 형태의 천장형태를 가진 고분으로 복원되는데, 이는 이후 100년 동안 비판없이 수용되어 왔다. 그러나 필자가 최근 발굴 당시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검토한 결과 장무이묘의 구조가 세키노의 복원과는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세키노가 바닥에 깔았다고 판단한 현실 내의 대형판석은 원래 천장을 덮었던 것이다. 석개천장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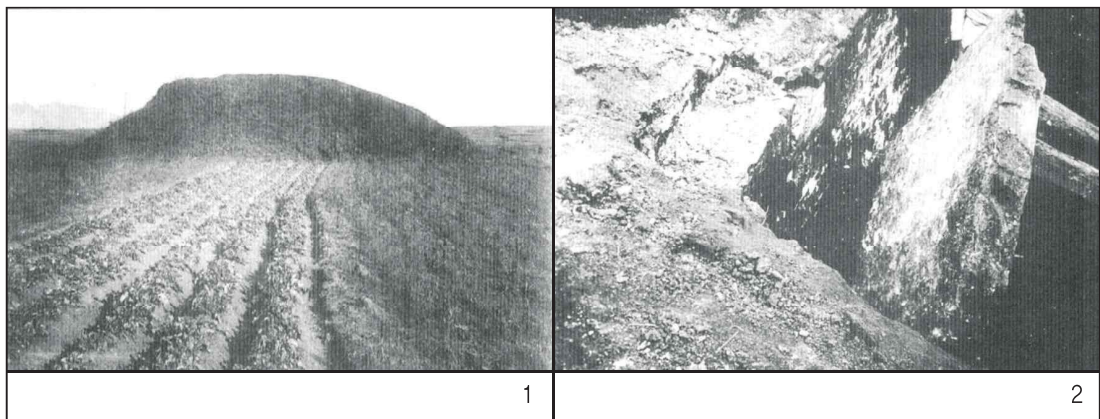


〈그림 2〉 이마이즈미가 작성한 석암동 고분 도면(세키노컬렉션 : 동경대학건축학연구실소장)

전실묘는 최근 북한학계의 발굴성으로 보아 4세기대에 만들어진 고구려 고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전실묘이라는 이유로 낙랑군 존속기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하는 기존의 인식틀에서 자유로워질 고고학적 근거가 된다. 즉 이는 구조상 고구려 무덤이라는 것이다(정인성 2010). 출토된 문자자료의 내용과 종류도 지금까지의 정리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는 강점기 고고학의 성과를 한국고고학의 입장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고적조사 1기에 이루어진 낙랑유적의 조사 사업에서 마지막으로 부기해둘 것은 1913년 공사 중에 오야리에서 처음으로 목곽묘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다. 연구자들이 현지를 방문했을 때 이미 고분은 파괴된 상태였지만, 수습된 목관과 목곽 편의 잔해를 통해 낙랑지역에 전실묘와 다른 구조의 고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에는 모자람이 없었다.

(이하 생략 : 강연자료를 통해서 설명)



<그림 3> 조사전의 장무이묘(1)와 현실에서 발견된 대형판석(2)

〈표 2〉 1910년대에 조사된 낙랑유적

| 調査日時          | 조사 대상         | 조사자               | 參考文獻  | 備考                           |
|---------------|---------------|-------------------|---|------------------------------|
| 1910          | 大同江面<br>東墳    | 關野, 谷井,<br>栗山, 今泉 | 朝鮮總督府, 1915.<br>정인성, 2006.                    | 1. 1910년까지의 조사에서는 전실묘만이 조사됨. |
|               | 大同江面<br>西墳    | 關野, 谷井,<br>栗山, 今泉 | 朝鮮總督府, 1915.<br>정인성, 2006.                    |                              |
| 1911<br>(明44) | 於乙洞土城         | 關野 외              | 關野, 1919, 關野 외, 1927.                         | 동경대학에 채집유물과 탁본               |
|               | 鳳山<br>張撫夷墓 1次 | 谷井                | 關野外, 1914a, 1927, 谷井, 1911.<br>정인성, 2010.     | 1. 대방군의 위치를 둘러싼 인식변화를 가져온 조사 |
| 1912<br>(大1)  | 鳳山<br>張撫夷 2次  | 關野, 谷井            | 關野, 1913, 1914a, 1914b, 關野 외, 1927, 谷井, 1912. | 1. 세키노 타다시가 조사에 동참하여 현실 발굴.  |
| 1913          | 梧野里古墳         | 深田, 關野,<br>谷井     | 朝鮮總督府, 1915.<br>정인성, 2006.                    | 공사 중 최초로 확인된 낙랑 목곽묘          |
| 1914          | 城榮洞古墳         | 谷井, 今西            | 谷井, 1915a, 雜, 1915a.                          |                              |

Not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기 가야학아카데미』

## -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에 기록된 우리문화재

- 일시 : 2016. 3. 23. ~ 6. 22. 매주 수, 오후 2시~4시 (2시간)
- 장소 : 국립김해박물관 강당
- 강의 일정 및 주제

| 회차 | 일자    | 주제                            | 강사  | 소속                  |
|----|-------|-------------------------------|-----|---------------------|
| 1  | 3.23. |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의 역사적 의미          | 이순자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책임연구원    |
| 2  | 3.30. | 유리건판으로 보는 북한의 불교미술            | 권강미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
| 3  | 4.6.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 김영민 | 국립중앙박물관 사진전문경력관     |
| 4  | 4.20. | 사진(유리건판)으로 보는 고구려             | 장은정 |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관       |
| 5  | 4.27. |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으로 본 서봉총의 발굴과 유물 | 박진일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
| 6  | 5.4.  | 일제강점기 가야지역 고적조사사업             | 김수환 | 함안박물관 학예연구사         |
| 7  | 5.11. | 일제강점기의 낙랑고고학                  | 정인성 |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
| 8  | 5.18. | 백제 고적조사사업                     | 이병호 |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
| 9  | 5.25. |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의 눈에 비친 한반도 선사문화  | 황은순 |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
| 10 | 6.1.  | 일제강점기 김해 회현리 패총의 조사와 의미       | 이기성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적학과 교수 |
| 11 | 6.8.  | 일본의 식민지 발굴조사와 일본 역사교과서 속의 가야  | 이영식 | 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교수     |
| 12 | 6.15. | 답사(백제문화권)                     | 윤용희 |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
| 13 | 6.22. | 답사(신라문화권), 수료식                | 김현희 |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 상기일정은 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